

영어 4등급도 서울대 가나 수능 최상위권, 영어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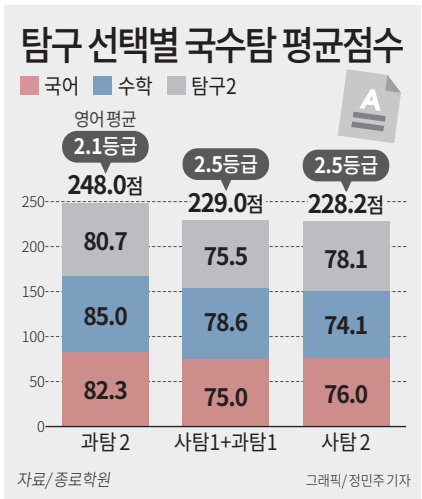
종로학원, 수능 가채점자료 분석
탐구선택 조합별 점수 차 ‘뚜렷’
상위권, 영어성적 하락 두드러져
대학별 영어 비중, 성패 가를 것

2026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상위권과 최상위권에서 영어 성적이 가장 낮게 형성되면서 대학별 영어반영 비중이 정시 지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탐구 과목에서는 과탐 2과목 선택자 집단의 점수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수능 직후인 11월 13일 수험생 5170명을 대상으로 한 가채점 자료에 따르면, 탐구 선택 조합별 점수 차는 뚜렷했다. 국·수·탐(2과목) 원점수 합산 300점 기준으로 ▲과탐 2과목 선택자 평균 248.0점 ▲사탐1·과탐1 선택자 229.0점 ▲사탐 2과목 선택자 228.2점으로 집계됐다.

영어 성적도 과탐 2과목 선택 집단이 평균 2.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정시 지원 계열 역시 선택 조합별 차



이가 컸다. 과탐 2과목 선택자의 89.7%는 자연계 지원 의사를 밝혔고, 사탐 2과목 선택자는 78.9%가 인문계열 지원을 희망했다. 사탐1·과탐1 선택자의 72.1%는 자연계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서는 영어 성적 하락이 두드러졌다. 국·수·탐 원점수 합산 250점대 이상 구간에서 영어는 네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최상위권인 290점 이상 구간에서도 영어 평균은 93.4점으로

▲국어(97.7점) ▲수학(98.4점) ▲탐구(96.9점)에 비해 낮았다. 중상위권(240점대)은 수학이 가장 낮았고, 200~220점대 중위권에서는 국어 성적이 가장 낮게 형성됐다.

종로학원은 영어 점수 분포가 올해 정시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어 절대평가라도 비슷한 점수대 내에서는 대학별 영어 비중이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운데 서울대의 영어 반영 비중이 가장 낮아, 성적표에서 국어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경우 영어 4~5등급 학생도 정시 합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가채점 결과는 상위권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며 “수험생들은 성적표 발표 후 자신과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과 과목별 유희리를 비교하고, 대학별 과목 가중치와 영어 반영 비중을 세밀하게 검토해 정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시각장애학생도 점자교재로 태권도 배운다

서울교육청, 점자교재·오디오북 보급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태권도 점자교재와 오디오북을 개발해 전국 시각장애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노원구 한빛맹학교에서 국기원, 한국점자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학생 태권도 점자교재 및 오디오북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그림·영상 중심 교재로 인해 태권도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발굴해 추진한 전국 첫 사례다.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외에 시각장애학생용 태권도 교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용 점자교재와 오디오북을 자체 제작했다. 태권도 품새 ‘태극 1장’ 점자교본(45쪽)과 방송인 이동우 씨가 참여한 오디오북(14분)은 이미 전국 15개 시각장애학교에 배포됐다. 점자교본은 이동·동작·호흡을 촉각 언어로 재구성했고, 오디오북은 반복

청취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돕도록 구성했다.

업무협약에는 ▲태극 2~8장 점자교재·오디오북 공동 개발 ▲국기원 검수 및 교재 인증체계 구축 ▲영문판 제작 및 해외 보급 ▲전국 점자도서관·복지관 배포 확대 ▲국기원 사법단의 시각장애학교 방문 수업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단순 교재 제작을 넘어 시각장애학생 체육교육 모델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점자교본 제작, 오디오북 개발, 현장 수업 지원, 전국·해외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포용적 체육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각장애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몸으로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태권도를 매개로 한 포용교육 모델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해 한빛맹학교 학생들의 태극 1장 연습을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곤돌라·360도 전망대… 남산, 세계명소로

서울시,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명동역~남산 정상 ‘5분 곤돌라’ 도입
사방이 포토존 ‘360도 전망대’ 조성

서울의 심장이자 생태 도심의 상징 ‘남산’이 더 즐겁고 푸르게 다시 태어난다. 오는 2027년, 명동역~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오를 수 있는 곤돌라가 생기고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 전망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남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더 좋은 남산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 명동서 남산방향 보행환경 개선

먼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도입한다.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 그간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남산 주변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보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철거, 보도 확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장, 도로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걸어서 편리하게 남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해방촌·경리단길에는 웰컴가든을 만들어 ‘찾아가기 쉬운 남산’을 만든다.

남산 내부는 올해 개장한 하늘숲길, 북측숲길을 포함한 1.9km 구간을 연결해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또한 구간마다 다른 남산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둘레길 및 생태·역사·관광 등 5대 테마숲길도 정비한다.

◆ 정정부 포토존 ‘360° 전망대’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 전망대를 새로 조성한다. 기존의 광장 상부는 전망대, 하부는 쉼터로 조성하고 야간 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로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남산의 색다른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요 조망거점 8곳도 ▲체류형 ▲활영형 ▲생태형 등 방문객이 용도에 맞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한다. 자연 그대로 청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력가든과 친수공간도 남산 곳곳에 조성한다.

올 한 해 세계를 흔들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안내체계도 개선한다.

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데크, 돌계단 등 노후 인프라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올해 러너용 샤워실, 정원예식장 등 이용객 맞춤형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 및 개선을 완료했으며 화장실 환경 개선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로봇 산업 혁신, 기업 투자유치 탄력

인천광역시 1일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핵심 사업인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10월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의 전략 중 하나로,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로봇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 이상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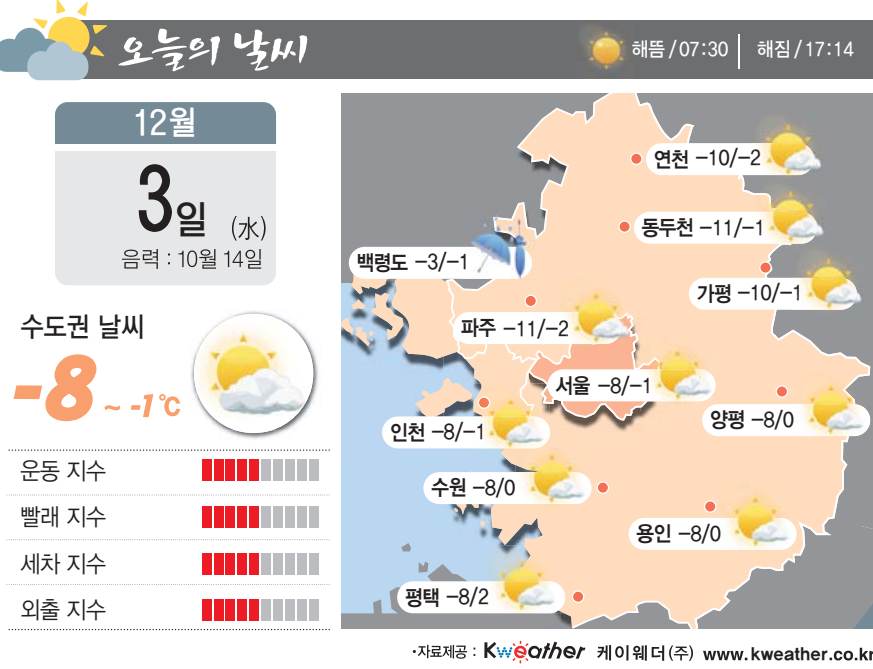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해 산·학·

연·관 협력 기반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IR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대비 약 40~50% 저렴한 공급가격은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 테마파크,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 완료 시 400여 개 로봇기업과 실증·연구기관이 집적되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와 실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R&D·생산·실증·체험·사업화 전 단계가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해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계기로 로봇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중·일 갈등 속 센카쿠서 마찰…中해경 “불법 진입 이어선 퇴거”
▲스티머 英 총리 “中, 국가 안보 위협이지만 관계 구축 중요”
/사진 뉴시스

▲美 특사 방러 속 중·러 외무장관, 2일 모스크바서 회동
▲트럼프,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통화…“시리아와 대화 계속해야”

▲미국, G20 의장국 임기 시작…“경제 성장에 집중”
▲美 국토안보부 장관 “여행금지 조치 확대해야”…트럼프에 보고